



용릉(隆陵) · 건릉(健陵)

수원시가 효원의 도시로 불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선시대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묘가 있는 곳으로 수원시 남쪽 43번 도로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사적지이며, 사적 제206호로 등록되어 있다.



용건릉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 쌓여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용릉(隆陵) 사적 제206호

용릉은 조선 제22대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1735~17762)와 그의 비인 헌경왕후(1735~1815) 홍씨가 묻힌 곳이다. 1749년(영조25년) 부왕을 대신하여 서정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론들과 영조의 계비 정순황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의 무고에 의해 영조의 미움을 사 영조 38년 뒤주 속에 갇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영조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고, 묘호를 수은묘라 하였다.

그의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장현으로 추존되었다가, 1899년(광무 3년)에 다시 장조로 추존되었다. 장조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 매봉산(현재의 동대문구 휘경동) 아래에 있었는데 정조가 수원화산으로 옮기면서 현릉원이라고 하였고, 장조로 추존된 뒤 능호를 용릉으로 높였다. 헌경왕후는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 1744년(영조20년)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장조가 세상을 떠난 뒤 혜빈, 정조 즉위년에 궁호를 혜경으로 올렸고, 뒤에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헌경왕후로 추존되었다.

헌경왕후는 남편의 참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한 많은 일생을 자서전적인 사소설체로 적은 한중록을 남겨 궁중문학의 효시가 되었다.

용릉은 합장릉으로 동·서·북 3면에 곡장을 두르고 봉분은 모란과 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을 둘렀는데 난간석은 생략되었다. 그러나 방위 표시를 위해 병풍석 위에 꽃봉오리 모양의 인석에 문자를 새겨 넣었다. 봉분 바깥으로 석호와 석양을 각각 2기씩 배치하여 봉분을 호위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 망주석과 장명등, 문인석까지 배치한 점이 중요하다. 또한 제사를 지내는 정자 모양을 한 정자각 뒤로 제향 후 축문을 태워 바라보는 곳인 망로위 등의 부속시설이 있다.

신문에서 정자각까지는 두 사람이 걸을 폭의 신도와 어도로 구분하였고, 정자각 그 아랫단 왼편까지 넓게 박석을 깔았다. 용릉은 능 조영에 정성을 들인 정조의 효심을 볼 수 있다.

- 홍살문 밖에서 본 용릉 전경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수복방, 가운데 있는 건물이 정자각, 우측의 건물은 비각)
- 수복방 : 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 정자각 : 제사를 지내는 정자
- 비각 : 능에 세우는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



- 응릉(사도세자의 묘) 앞에 있는 작은 다리 원대황교, 이곳을 건너면 응릉에 도달할 수 있다.
- 곤신지 : 정조가 아버지 사도장헌세자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응릉 풍수반릉농주형국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연못.

건릉(健陵) 사적 제206호

건릉은 정조(1776~1800)와 효의왕후 김씨가 묻힌 곳이다. 정조는 장조의 아들로 1759년(영조35년)에 세손에 책봉되었다. 1762년 장헌세자가 비극의 죽음을 당하자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5년 연로한 영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 하였고, 영조가 승하하자 1776년에 왕위에 올랐다. 정조는 아버지인 장헌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기에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영조 이래의 기본정책인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왕실의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하였고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여 새로운 혁신정치를 펼쳤다. 또한 임진자·정유자 등의 새로운 활자를 만들었으며, 속오례의·국조보감·대전통편·증보동국문헌비고 등의 많은 서적을 편찬·간행하였다.

재위기간은 정조의 학문적 소양에 터전한 적극적인 문화 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중국의 건륭 문화의 영향 등으로 문화적인 황금시대를 이루어 조선후기 문예부흥기를 이루었다. 효의왕후는 청원부원군 김시묵의 딸로 1762년 세손빈으로 책봉되었으며,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1821년 창경궁에서 승하하였다.

건릉은 합장릉으로 동·서·북 삼면의 곡장에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다른 상설 내용은 응릉의 예를 따랐다. 석물은 난간석 바깥으로 석호와 석양

을 각각 4기씩 배치하여 봉분을 호위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 망주석과 장명등, 문인석과 무인석, 석마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제향을 지내는 정자 모양을 한 정자각, 정자각 뒤로 제향후 축문을 태워 묻는 사각형의 석함인 예감, 비를 안치하는 비각, 제물을 준비하는 수라간, 제향후 축문을 태워 바라보는 곳인 망료위 등의 부속시설이 있다.

신문,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는 신도와 어도로 구분하였고, 정자각 그 아랫단 왼편까지 넓게 박석을 깔았다. 신문 밖으로 능의 수호·관리를 위한 재실이 있다.

영조와 장조(사도세자), 정조대왕 시대의 역사적 배경

조선왕조 제21대 영조는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 왕자 금으로 1694년 태어났다. 숙종은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등 세 명의 완비를 맞이했지만 이들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고 숙종에게 아들을 안겨다준 사람은 천비 소생의 두 후궁으로 나인 출신의 희빈 장씨와 무수리(나인들에게 세숫물을 떠다 받치는 종) 출신의 희빈 최씨가 바로 그들이다.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은 왕자 균이고, 숙빈 최씨가 낳은 아들은 왕자 금이었다. 그들의 나이 차이는 여섯 살로 왕자 균은 14세가 되던 1701년 희빈 장씨를 잃었다. 숙종에 의해 어머니가 사사되는 것

을 본 그는 그때 병을 얻었고 생모 장씨가 사약을 받는 자리에서 균의 하초를 못 쓰게 만들어 생산 능력을 잃게 된다. 왕자 균의 이 같은 결점은 이복동생 금에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한편으로는 그에게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한다. 이후 균을 지지하는 소론과 금을 지지하는 노론으로 일대 당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세자 균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했으니 그가 경종이었다. 이후 1724년 8월 이복형 경종이 죽음에 따라 금이 조선 제21대 왕으로 등극 한다.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자신을 근경에 몰아넣고 수많은 대신들을 죽게 했던 신임옥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신임옥사는 소론 대신들이 노론 4대신을 포함한 60여 명을 처형시키고, 관련자 170여 명을 유배시키거나 치죄하여 축출시킨 모역 사건) 이후 탕평책으로 정국 구도에 따라 노론, 소론, 남인, 소북 등 사색당파를 고르게 등용하여 탕평 정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

그런데, 탕평정국이 오래 지속되자 각 당파들은 다시 집권하기 위한 계락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이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는 정성왕후 서씨와 정순왕후 김씨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정빈 이씨와 영빈 이씨에게서 효장세자와 사도세자를 얻었다. 하지만 큰아들 효장세자는 세자 책봉 후 요절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사도세자 선이 세자에 책봉 되었다.

1749년 영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 선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한다. 그런데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은 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노론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세자와 영조 사이를 벌여놓기 위해 이간질을 하였다. 세자에 대한 정순왕후, 숙의 문씨 등의 무고에 따라 영조는 자주 세자를 불러 질책하였으며, 이 때문에 세자는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함부로 궁녀를 죽이거나 왕궁을 몰래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였다. 영조는 더 이상 그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1761년 세자가 임금도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이 발생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세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노론측의 윤재겸 등이 세자의 행동이 체통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담은 소를 올리자, 영조는 세자의 관서 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 후 세자에 대한 영조의 불신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계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한다.

이 때문에 영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자에게 자결



수북방의 전면과 후면(굴뚝 등을 통해 당시 제를 올리는 관리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묻어나고 있는 곳, 당시 이곳의 우두머리는 박래원 참봉으로 우리협회 박구준 부회장의 조상이기도 하다.)





● 건릉(정조대왕 의 묘)의 전경

을 명하였다. 하지만 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후 뒤주 속에서 가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하지만 영조는 이 사건 이후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세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그에게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친히 신주에 제주를 하면서 아들을 죽인 자신의 행동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행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슬한 당쟁에 휘말리며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자신이 처한 위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국을 탕평책으로 주도하면서 이처럼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했으며, 1776년 3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조선 27왕 중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으며(51년 7개월), 가장 장수한 왕이었다. 83세를 사는 동안 정성왕후 서씨를 비롯한 6명의 부인에게서 2남7녀의 자녀를 얻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 원릉에 묻혔다.(손자 정조에게 정성왕후가 묻혀 있는 홍릉에 묻히기를 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짐.)

정성왕후 서씨(1692~1757년)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 1704년 13세의 나이로 숙종의 둘째 아들 연잉군과 가례를 올려 달성군부인에 봉해지고, 1721년 경종이 병약하여 후사가 없어 연잉군이 세

제로 책봉되자 동시에 세제빈에 봉해졌으며, 1724년 영조가 즉위함에 따라 왕비에 봉해졌다. 1740년 혜경이라는 존호가 존호가 올려 졌으며, 1757년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소생은 없으며 능은 홍릉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

정순왕후 김씨(1745~1805년)

오흥부원군 김한구의 딸.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죽자 1759년 15세의 나이로 왕비에 책봉되어 66세의 영조와 가례를 올렸다. 그녀는 소생은 없었고, 영빈 소생의 사도세자를 미워하여 아버지 김한구의 사주를 받아 모함했으며, 나경언이 사도세자의 10가지 비행을 상소하자 그를 서인으로 폐위시켜 뒤주 속에 가두고 굶어죽게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정조는 1752년 영조의 둘째아들 사도세자와 혜빈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산, 자는 형운으로 1759년 8세의 나이로 세손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762년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자 횡사한 영조의 딸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제왕 수업에 들어갔다. 이후 1775년 82세의 연로한 영조가 대리청정을 시켰고, 이듬해 3월 영조가 죽자 그는 25세의 나이로 조선 제 22대 왕에 즉위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역시 항

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손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홍국영 등의 도움을 받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지켜나갔고, 철저히 내면을 숨기며 살았다. 그래서 '개유와'라는 도서실을 마련하여 청나라 건륭 문화에 열중하면서 전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11세 이후 줄곧 가슴앓이로만 간직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한편, 파당을 배격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등용해 친위 세력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세손 시절부터 줄곧 그를 경호하던 홍국영을 동부승지로 전격 기용하였다가 다시 도승지로 승격시켰으며, 날랜 병사들을 뽑아 숙위소를 창설해 왕궁을 호위하게 하고, 홍국영으로 하여금 숙위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조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홍국영은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삼사의 소계, 팔도의 장첩, 묘연, 전랑직의 인사권 등을 모두 총괄하였고, 이에 따라 백관들은 물론 8도감사나 수령들까지도 그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 그리고 누이동생을 정조의 후궁이 되게 함으로써 정권을 한손에 쥐게 되었다. 모든 관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므로 이른바 세도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홍국영의 세도정치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정조의 후궁으로 바친 누이동생이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정조 또한 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조는 그가 스스로 조정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국영은 오히려 정권을 독점하기 위해 왕비 효의왕후를 독

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것이 발각되어 1780년 집권 4년 만에 가산을 몰수당하고 전리로 방출되었다.

정조는 홍국영의 4년 세도정치 기간 동안 충실히 규장각을 확대하고 인재를 끌어 모았다. 즉, 모든 신하들의 눈을 홍국영에게 집중시킨 다음, 자신은 앞으로 펼칠 문화정치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는 고의로 홍국영의 세도정치를 부추기거나 방치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효의왕후 김씨(1753~1821년)

좌참찬 김시목의 딸. 1762년 10세 때 세손비로 책봉되어 정조와 어의동 분궁에서 가례를 올렸으며,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진봉되었다. 그녀는 효성이 지극하여 시어머니 혜빈 홍씨를 지성으로 모셨기에 궁중에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우애가 극진하여 고모인 화완옹주가 그녀를 몹시 괴롭혔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왕가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성품이 고결하고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사가에 내리는 은택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였다. 그래서 수진궁과 어의궁에 쓰고 남은 재물이 있어도 궁중의 물품은 공물이라 하여 일체 사가에 보내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채 1821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일생을 검소하게 보냈으며, 생전에 여러 차례 존호가 올려졌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정조와 같이 건륭에 문했다. ❶ *취재 및 자료정리/사진 • Willy*

〈참고문헌〉 1. [조선왕조 실록] - 지식하우스

2. [조선왕조 실록] - 도서출판 들녘

정조시대의 세계사

이 시기 중국 청에서는 '백련고도의 난'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났고, 일본은 서양 문물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후 나폴레옹에 의해 혁명전쟁이 이어졌고,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워싱턴, 제퍼슨 등을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미국의 시대였다. 독일에서는 '슈트름 온트 드랑'적인 사상이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자 괴테와 실러 등에 의해 조화와 정제미를 추구하는 고전주의 문학이 모색되고 있었고, 베토벤이 등장하여 고전파 음악의 완성과 함께 낭만주의 음악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었다.